

507일의 변화...멈췄던 학교의 시간을 기록하다

남평507 갤러리 기획전 '다시 피어난 학교'展...내달 31일까지

폐교·공사·완공까지...60여점 어반 스케치로 그려낸 변화과정



화가로 활동하며 남평 507 운영을 이끌어오고 있는 정명숙 대표.

잡초가 무성하던 폐교가 예술의 공간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나주 남평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남평507(대표 정명숙·나주 남평읍 동촌로283)'이 공간의 탄생 과정을 기록한 기획전 '다시 피어난 학교: 507일간의 스케치'를 선보인다.

지난 3월 개관한 남평507은 2007년 폐교된 남평북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문화공간이다.

약 20여 년간 방치됐던 학교는 나주시 공모사업을 통해 정명숙 대표의 제안이 선정되면서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했다.

'507'이라는 이름은 옛 지번 '광촌리 507번지'에서 따온 것으로, 공간이 지닌 역사와 기억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 대표는 화가로 활동하며 카페·캠핑

장 운영, 교육 현장 경험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아 온 인물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머물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남평507을 꾸렸다.

부지 약 2천평 규모의 공간은 카페와 갤러리, 세미나실, 체험학습실, 야외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507+ 카페'와 '남평 갤러리', 야외 볼링 공간 '감성마루', 체험학습실 '폴라 스튜디오', 주민 쉼터 등이 자리하고 있다.

개관 당시 호남 미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가 5인을 초청해 '남평으로의' 초대전을 개최한 데 이어, 현재는 첫 기획전 '다시 피어난 학교: 507일간의 스케치'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는 윤민화 광주예술공감연구소 대표 기획 아래, 폐교가 문화공간으로 변화하는 전 과정을 예술적 기록으로 풀어낸 아카이빙 프로젝트다.

김경민·김수옥·김은영·문승일·서재은·선안희·양송희·장윤숙·정성모·조미영·조순옥·조혜경·황경화 13명의 어반스케치 작가가 참여해 약 2년간 현장을 다녔 차레 방문하며 공간의 변화를 기록했다.

작가별 4-5점씩 60여점이 전시되며 방치된 폐



2007년 폐교된 나주 남평북초등학교가 복합문화공간 '남평507'로 탈바꿈했다.

교의 모습부터 공사 과정, 완공 이후 모습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담아낸다.

남평 분교 담벼락과 드들강 봄 풍경 등 지역의 일상과 풍경을 포착한 작품들도 함께 선보이며, 정 대표가 직접 촬영한 영상 작업 역시 전시에 포함됐다.

영상에는 오래된 건물, 나무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의 고민이 담겼다.

남평507에서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주말에는 '나무인형 폴라주 아트' 원데이 클래스가 진행되며, 드로잉과 수채화를 체험하는 '혼자 그리는 미술시간'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풍경화 그리기, 베이커리 체험, 인문학 드로잉, 반려식물 테라리움 등 다양한 체험



어반스케치 '다시 피어난 학교' 전시가 진행 중인 남평 갤러리 전경.



남평507 체험학습실



상설전이 진행 중인 남평507내 카페 공간.

이 운영 중이다.

향후에는 나주 지역 작가 전시를 비롯해 사생대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평507을 어린이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찾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정명숙 대표는 "아이와 어른 모두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러가고 싶다. 작품 감상에

그치지 않고 휴식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시 피어난 학교: 507일간의 스케치' 전은 오는 5월31일까지 남평507 내 남평 갤러리 전시실에서 열린다. /최명진 기자

먹빛과 번짐 사이...화면 위 꽃 피우다

문명호 개인전 '꽃-색 그리고 향연'...내달 4일부터 ACC디자인호텔 갤러리

꽃 한 송이를 화면 가득 펼쳐내며 색과 감성의 결을 탐색해 온작가 문명호가 다시 한번 '꽃'이라는 모티브에 집중한다.

문명호 개인전 '꽃-색 그리고 향연'이 오는 5월4일부터 31일까지 ACC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는 대학 졸업 이후 38년간 전업으로 작업을 이어오며 광주와 서울·영남·부산 등에서 16회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국내외 단체전과 초대전에 500여 차례 참여해왔다.

이번 전시는 꽃 한 송이를 대형 화면으로 확장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꽃의 화려함과 생동감 등 내면에서 감각되는 이미지를 작가의 정서와 결합해 회화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작품에 따라 먹색 중심의 한국화적 분위기와 수채화의 번짐 효과를 함께 활용해 화면에 깊이와 부드러운 흐름을 더했다. 특히 모든 작품에 이중 캔버스를 적용해 표면에 요철을 만들고 입체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여백과 편안함을 부여하면서도 시각적인 흥미를 더한 점이 눈에 띈다.

작가는 꽃을 삶의 감각을 환기하는 주요 모티브로 삼는



'동백-향수'

다. 동백, 매화, 장미, 해바라기 등 다양한 꽃을 통해 생명의 에너지와 감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각각의 대상이 지닌 상징성과 정서를 화면에 담아낸다.

문명호 작가는 "꽃은 삶의 향연이다. 꽃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과 미의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풀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암스테르담서 펼쳐지는 무등미술 향연

광주전남발전협의회 주최...오는 29일부터

무등미술대전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작가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해외 교류 전시에 나선다.

광주전남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무등미술대전 암스테르담으로의 초대전'이 오는 29일부터 5월2일까지 네덜란드 갈라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무등미술대전과 연계해 마련된 해외 전시로, 한국 작가들의 작업을 유럽 현지에 소개하고 국제 교류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무등미술대전 역대 수상 작가를 비롯해 운영위원, 심사위원 등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을 폭넓게 아우른 초청 형식으로 구성됐다. 총 49명의 작가가 참여해 각자의 작업을 선보이며, 그간 축적된 무등미술대전의 성과를 함께 조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시가 열리는 네덜란드는 17세기 황금시대를 중심으로 세계 미술사에 큰 영향을 미친 예술의 중심지로 꼽힌다. 이러한 예술적 전통이 이어지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흐름과 작가들의 개별적인 시선



김은미작 '조우'

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기대를 모은다.

박호배 광주전남발전협의회 회장은 "이번 전시가 무등미술대전과 함께하는 소중한 교류의 장이 돼 예술을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